



IT벤처, 성장 단계별 지원 제6차 '벤처CEO포럼' 개최

벤처기업협회와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매일경제TV가 후원하는 '제6차 벤처CEO포럼'이 지난 12월 18일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IT산업 전망과 벤처정책'이라는 주제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고현진 원장이 강연했다. 뒤이어 파블로로참석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인찬 실장이 2004년 IT정책을 전망하고, 투비소프트 김형곤 대표가 한업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IT산업 전망과 벤처정책' 강연을 요약한 글이다.

주제발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고현진 원장
패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인찬 실장
투비소프트 김형곤 대표
사회자: 이커뮤니티 정희훈 대표



컴퓨터가 상용화 되기 시작한 60년대부터 윈도우시리즈로 MS가 성장하기 시작한 90년대까지 IT산업의 발전 과정을 보면 자본주의의 가장 단순한 이론인 유희 생산 즉, 분업의 이론으로 발전해왔다. 현재 IT의 성장에 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IT로 인해 기업이나 생활 양식에 더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기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최근 Ubiquitous Computing 시대의 도래에 따라 IT산업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S/W의 표준화 등 신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른 Global IT 기업의 전략을 보면 MS는 계속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IBM은 M&A를 통해서 5개의 솔루션 선을 갖고 서비스회사로 이행하고 있다. 즉, 거대 다국적 기업은 웹 서비스로의 이행에 대비하여 끊임없이 M&A를 하고 있으며 표준화를 위해서 경쟁업체간 합종연횡도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국민소득 2만불을 목표로 그 중 25%를 IT가 차지한다는 계획에 따라 10대 신성장산업을 선정했다. 신성장동력의 전략은 현재 경제우위인 분야는 유지하고, 기존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이끌고 미래 IT기술의 진화를 선도하여 신시장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IT산업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

국내 S/W산업은 벤처부 등을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하였으나 지금은 경기침체로 S/W기업들에게 시련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현황은 외산주도로 이루어져 국내는 외산S/W와 H/W의 유통업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패키지S/W 산업분야의 문제점은 과거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S/W에 대한 가치인식이 부족하다는 것과 소유와 경영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M&A가 활성화되지 못해 영세성 및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IT산업 분야의 경우는 대기업 구조로 인해 대기업 스스로도 전문화가 되지 않고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시장을 제한 당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장에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정책 펼칠터

과거 벤처정책은 벤처기업인증과 Incubating 중심이었다. 기업에 시장을 만들어주기보다 기업에게 직접 돈을 지원하여 과당경쟁을 지속시키고, 벤처는 시장이 요구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기술중심적 기업활동을 했다.

향후에는 인큐베이션을 지양하고 시장에 나온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제품개발)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정보를 제공·공유하고 기술개발 및 지역 비즈니스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지원할 것이다.

성장(시장진입)시에는 외부에 제품과 기술을 알리고 벤처 캐피탈 등과 네트워킹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수S/W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유통활성화와 기업설명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숙(규모의 경제)이 되면 기업규모 확대에 따른 M&A와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하므로 조성된 M&A펀드 활용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 예정이다.

S/W산업정책의 방향을 이끌어가기 위한 세 가지 정책프레임은 첫째, 공공기업의 수요를 선도하고 가치인식제고 등을 통한 내수기반 활성화로 꼽을 수 있다. 두 번째로 패키지 S/W 육성과 오픈소스

등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요소기술과 핵심기술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S/W업체들을 지원하여 계속하여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인찬 실장 : 2003년을 마감하면서 벤처 IT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한 회고와 2004년 전망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2003년 경제성장률은 약 2.7%로 내수와 투자가 부진한 반면 수출은 회복되는 추세였다. 2004년도에도 내수는 계속하여 부진할 것이나 신규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2004년에는 정부도 M&A와 관련한 정책을 손질, 구조조정이 효율화 과정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금융부문은 사모주식투자(PEF)에 대한 활성화와 벤처캐피탈, 코스닥의 구조조정 진행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책환경에 관해서는 차세대 성장동력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와 spin-off 등이 기대된다.

결국 기술 및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수익성이 있는 사업모델을 통해 승부하는 벤처의 기본정신에 충실한기업만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04년에는 경기반등, 그리고 디지털 컨버전스의 전개 등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맞이하여 더욱 바쁜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곤 대표 : 요즘의 S/W산업 환경의 어려움은 경기침체와 같은 상황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품들의 기본적인 경쟁력은 많이 올라왔으나 현장에서는 기술력보다는 브랜드에 의해 치닫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이나 원천기술을 행들링할 수 있는 엔지니어 등의 인력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S/W지원정책은 많지만 결과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연이나 제도들이 통합되어야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